

About this Report

SK에너지는 기업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회와 함께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이 되고자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 및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2005년 12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2009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SK에너지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내 주요 사업장인 본사, 울산CLX, 인천CLX, 기술원에서 추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이사회 현황, 해외지사·법인 리스트 등 일부 내용은 2011년 3월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당사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이 되는 SKMS(SK Management System)를 토대로 하여 전반부는 중대성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이슈들 중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6개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후반부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부분은 당사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며 환경에 영향이 가장 큰 울산CLX와 인천CLX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나 시스템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전년도 보고서의 내용을 재 인용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G3.1)을 참고하였으며 GRI Content Index(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의 신뢰성과 GRI 가이드라인의 준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 KMAR(한국능률협회인증원) 제3자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 외에 당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2010년 사업보고서와 2010 Annual Report, SK이노베이션 웹사이트(www.SKinnovation.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공시

SK에너지는 본 보고서를 GRI G3.1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적용 수준 측면에서 'A+' 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제3자 검증기관 또한 본 보고서가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중 'A+'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